



## 『후설(喉舌) : 승정원일기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다』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번역팀 엮음,  
한국고전번역원, 2014

마 원 준\*

### 1. 『승정원일기』의 의미, 편찬 및 번역 과정

유네스코(UNESCO)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멸실 위험이 큰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인류의 보편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세계 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인류의 기억으로 물려줄 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였으며, 2013년까지 11개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보유하고 있다.<sup>1)</sup> 이 중에는 조선

\* 안전행정부 기록연구사.

1) 유네스코는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적 가치가 있는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세계 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6월 현재 기준으로, 102개국·5개 기구의 중요 기록유산 300건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훈민정음』(1997년), 『조선왕조실록』(1997년), 『직지심체요절』(2001년), 『승정원일기』(2001년),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년), 『조선

시대 왕명 출납을 관장하던 승정원에서 국정과 관련된 내용을 일기 형태로 기록한 국보 303호인 『승정원일기』도 포함되어 있다.

『승정원일기』는 오늘 날로 말하면 대통령 보좌기관에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 ‘목구멍과 혀’라는 뜻의 별칭인 ‘후설(喉舌)’로 불렸던 승정원에서 왕명 출납에 따른 국정운영 전반과 제반 행정사무, 각종 왕실 의례 등을 일기 형식으로 상세히 기록한 책이다.

조선 초기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으나, 임진왜란(1592년)과 이괄(李适)의 난, 1744년(영조 20년)과 1888년(고종 25년)에 화재 등으로 상당 부분 소실되는 수난을 겪었고, 영조와 고종대에 재간행되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과 같이 복본의 보존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소실되었음에도 1623년(인조 1년) 3월부터 1910년(융희 4년) 8월까지 총 288년간의 역사를 담은 3,245책이 전해져 단일서종으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양을 지닌 역사서로 현존하고 있다.

글자 수는 2억 4,300만자로 『조선왕조실록』(888책, 5,400만자)의 5배 분량에 해당하고, 조선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상세한 기사를 담고 있어 왕 사후에 편찬한 『조선왕조실록』보다 내용이 풍부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이 시정기, 사초(史草), 승정원일기 등을 참고하여 편찬한 2차 사료라면, 『승정원일기』는 1차 사료이므로 기록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가치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이전에는 연구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접근이 쉽지 않았고, 인지도 및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이는 『승정원일기』가 유일본이므로 열람이 쉽지 않은데다가 한문 초서(草書)로 기록되어 있어 초서에 조예가 깊은 소수의 한학자 이외에

---

왕조의궤』(2007년), 『동의보감』(2009년), 『일성록』(2011년),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2011년), 『난중일기』(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년) 등 총 11건의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독일(17건), 오스트리아(13건), 러시아·폴란드(12)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네스코와 유산”(www.unesco.or.kr/heritage) 참조.

는 내용 파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승정원일기』에 대한 보편적 접근은 1960년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이뤄졌다. 국사편찬위원회가 한문 문리와 초서 해독에 능한 한문학자를 동원하여 「승정원일기 재 간행 사업」(1960년~1977년)을 통해 『승정원일기 영인본』 141책을 완간하였고, 원본 소장기관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은 『승정원일기』 원본을 이미지화하여 웹에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12년 『승정원일기』를 탈초한 영인본 141책 중 128책을 전산화하여 웹으로 서비스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서비스<sup>2)</sup>를 통하여 연구자와 일반인들은 『승정원일기』를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한글 문화권에 익숙한 현대인들은 다량의 『승정원일기』를 해독하기 어려워 내용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인들도 어려움 없이 『승정원일기』의 내용을 단편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었던 계기는 1993년 『승정원일기』가 번역되면서부터 이뤄졌다. 한국고전번역원<sup>3)</sup>의 전신인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제 강점기 총독부에서 간행한 『고종·순종실록』을 『조선왕조실록』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명분으로 고종·순종대 『승정원일기』를 번역하였다. 이를 통해 『승정원일기』 번역의 첫 걸음이 열렸고, 20여년이

- 
- 2) 『승정원일기』를 디지털한 결과물을 보려면 “승정원일기 사이트”(http://sjw.history.go.kr)를 참조하라.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에 대한 소개와 탈초 영인본 141책 중 1책~123책, 127책~136책(인조 원년 3월부터 철종 6년 2월, 고종 원년 1월부터 고종 27년 1월)의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 3) 한국고전번역원은 “고전 문헌을 수집·정리·연구·번역·보급함으로써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한국고전번역원법』의 제정을 통해 2007년 11월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965년 11월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민족문화추진회가 전신이다. 한국고전번역은 내 번역사업본부가 있으며 번역사업본부 내에 역사문헌번역실이 있다. 그리고 역사문헌번역실은 승정원일기번역팀, 일성록번역팀, 조선왕조실록번역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세 내용은 “한국고전번역원 홈페이지(http://www.itkc.or.kr)”를 참조하라.

흐른 현재까지 약 500책이 번역되었다.<sup>4)</sup>

지금도 한국고전번역원을 중심으로 영조대 『승정원일기』의 번역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추세로는 완역까지 약 100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sup>5)</sup>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없다면, 현 시대의 대다수 사람들은 『승정원일기』의 완역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정원일기』 번역을 주도한 한국고전번역원 역사 문헌번역실 승정원일기번역팀의 전문 연구자들이 『후설(後舌) : 승정원일기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다』라는 책을 기획·집필하였다. 『승정원일기』의 내용을 직접 접하기 어려운 독자들에게 조선시대의 역사와 현장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승정원일기』를 주제로 한 대중서가 이전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sup>6)</sup> 그러나 원문과 시름하며 국역을 주도해 온 전문연구자들이 저술한 책이기에 내용의 현장감이 더 생생하게 다가온다.

본 서평을 통해 본서의 기획 의도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시사점 등의 서술을 통해 독자들의 안내를 돕고자 한다.

- 
- 4) 『승정원일기』 국역은 “일제 강점기 총독부에서 간행한 『고·순종실록』을 『조선왕조실록』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명분과 한국고전번역원의 입장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 『승정원일기』 국역은 1993년 완료한 『조선왕조실록』 국역을 통해 길러진 한자 해독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승정원일기』가 2001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승정원일기』의 국역이 2002년부터 전제로 확대되었다. 한국고전번역원, 『민족문화추진회 42년사』, (주)해럴드미디어, 2009. pp.185~186.
  - 5)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번역팀 엮음, 『후설(喉舌) : 승정원일기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다』, 한국고전번역원, 2014, p.285.
  - 6) 『승정원일기』를 다룬 대중서로 국사편찬위원회의 박홍갑·이근호·최재복에 의해 『승정원일기 소통의 정치를 논하다』(산처럼, 2009)라는 책이 출간된 바 있다. 세계기록유산인 승정원일기의 가치를 알리자는 뜻에서 2006년 경향신문에 연재했던 “세계기록유산, 승정원일기를 읽는다”는 내용을 토대로 저술했다. 왕의 비서실인 승정원과 『승정원일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왕의 모습, 조선시대의 속기록에 나온 왕의 모습, 국정의 이모저모, 양반과 상놈들의 풍속 등을 각종 기사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 2. 본서의 기획 의도

본서는 2013년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고전번역원 승정원일기번역팀의 전문연구자들이 기획하고, 집필하였다. ‘세계가 인정한 자랑스러운 기록유산인 『승정원일기』를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기획하였으며, 독자들이 『승정원일기』의 내용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선별하여 집필하였다. 그러다 보니,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기사와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각각의 주제에 부합하는 사료(문헌, 지도, 사진 등 92점의 사료를 소개)가 도록(圖錄) 못지않게 실려 있다.

이러한 대중화의 노력은 『승정원일기』에 나온 기사를 소개한 부분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문으로 된 원문을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상황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들이 보인다. 특히, 왕과 신하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과 얼굴 표정, 몸짓까지 묘사한 지문은 사실 관계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감정까지도 전달한다. 그러다 보니 글을 읽으면서, 기사에서 묘사한 상황이 머릿속에서 연상되곤 한다. 『승정원일기』가 지닌 기록의 정교함과 세밀함에 대한 감탄과 함께 현대인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번역에 공을 들인 집필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아직 많은 부분이 번역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번역될 『승정원일기』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시대에 어떤 교훈을 줄지 기대감 든다.

## 3. 구성 및 내용

본서는 머리말, 내용, 맺음말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말은 『승정원일기』의 개요와 기획 의도를 간략하게 담고 있다.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은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승정원일기』의 의미와 가치, 역사적 사건

과 관련 기사, 『승정원일기』에 포함된 각종 문서 이야기, 『승정원일기』를 통해 재현한 왕의 하루와 『승정원일기』를 만든 승정원과 주서 등의 역할 등을 다루고 있다. 맺음말은 『승정원일기』의 국역을 담당하고 본서를 집필한 저자의 감회와 기대가 실려 있다.

본론을 좀 더 상술(詳述)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는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인 『승정원일기』의 제작 배경과 의미, 기록학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네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단일서종으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역사연구 자료로 높은 가치를 지닌 1차 사료라는 점, 국정운영 전반 담고 있으며, 생생한 현장감을 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비변사일기』, 『조선왕조의궤』 등과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sup>7)</sup>

제2부는 “『승정원일기』와 함께 떠나는 역사 여행”이라는 주제로 역사적 사건과 사회상을 보여주는 내용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각각의 주제와 관련된 시대적 배경 설명과 저자의 소감을 기술하고 있다. 『승정원일기』에 나온 직접적인 기사를 접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주제와 관련된 각각의 기사를 읽다 보면, 왕과 신하들이 입시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현장에 참여한 느낌을 받기도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와 저자의 감정까지 이입되곤 한다.

예를 들면, 1724년 8월 25일 경종의 국상(國喪)을 준비하며 왕세제였던 연잉군과 경종의 계비인 선의왕후가 지켜보는 가운데 거행된 목욕

7) 『승정원일기』(총 3,245책 2억 4,300만자)의 방대함을 언급하기 위해 『조선왕조실록』(888책 5,400만자), 『팔만대장경』 목판본(8만여 장, 5,000만자), 중국의 『이십오사(二十五史)』(3,996만자), 『명실록(明實錄)』(1,600만자) 등과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내용의 다양성을 소개하기 위해 날씨와 천문현상, 입진(入診) 기사, 국정운영 전반의 충실한 사항이 기록화 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이 왕 사후 편찬한 2차 사료인 점에 비해 『승정원일기』는 1차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는 점과 『조선왕조의궤』가 ‘사진’이라면 『승정원일기』는 말과 움직임을 살아 있는 ‘동영상’에 비유될 수 있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의식을 소개하고 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옥체의 위치와 의식에 참석 한 왕세제 및 신하들이 앉은 위치, 침상에 까는 자리와 요, 베개의 빛깔, 얼굴을 닦고, 손톱과 발톱을 깎고, 옷을 벗겨 목욕을 시킨 뒤 마무리하는 모습을 순서에 따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식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조심스러움과 엄중함이 그대로 묻어난다. 경종의 승하로 시신을 모시기 위한 빈전을 설치하고 운영했던 장례절차를 기록한 『경종빈전도감의궤(景宗殯殿都監儀軌)』가 사진에 비유된다면, 『승정원일기』 기사에 등장하는 내용은 동영상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 오늘 날에 비해 기록매체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문자를 통해 사실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요소까지 상세하게 기술한 부분을 전하면서 철저한 기록화와 이를 통한 역사 전승 의지의 볼 수 있다.

제3부는 “승정원일기 속에 담긴 문서”를 소개하고 있다. 승정원이 당시 왕명출납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왕이 내리거나, 보고된 문서의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고 정리하는 수고를 감당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승정원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겼다. 따라서 『승정원일기』는 하나의 일기이지만, 다양한 문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왕이 내린 명령이나 왕께 보고된 문서를 중심으로 문서의 성격과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왕이 내리는 문서로는 전교(傳敎)와 비망기(備忘記)<sup>8)</sup>, 비답(批答)<sup>9)</sup>, 교서(敎書)<sup>10)</sup>, 윤음<sup>11)</sup>, 유서(諭書)<sup>12)</sup>가 있고, 왕께 상신하는

- 
- 8) 전교(傳敎)는 두 가지 경로로 작성된다. 하나는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어전에서 임금이 구두로 불러 주는 말을 승지가 글로 써서 반포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승지가 입시하지 않았을 때, 액정서 소속의 사알(司諫)로 하여금 글로 써서 승정원에 전달하게 하는 것으로 ‘비망기’라고도 한다.
  - 9) 비답(批答)은 신하가 올린 각종 문서에 대해 임금이 글로 답변하는 것 또는 답변한 문서를 일컫는 말이다.
  - 10) 교서(敎書)는 임금이 특정한 개인이나 다수의 대중에게 내리는 문서로 ‘교문(敎文)’이라고도 한다.
  - 11) 윤음은 임금이 다수의 대중에게 내리는 문서로 농사를 권장하거나 술을 금지하는 등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포고하기도 하고, 경기도나 제주도 등 특정 지역의 백성만을 상대로 포고하기도 한다.

문서로는 계사(啓辭)<sup>13</sup>, 초기(草記)<sup>14</sup>, 서계(書啓)<sup>15</sup>, 장계(狀啓)<sup>16</sup>, 상소(上疏)<sup>17</sup>, 단자(單子)<sup>18</sup>가 있다. 『승정원일기』에 등장하는 각각의 문서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각각의 문서형태를 알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사진자료가 문서자체가 주는 건조한 이미지를 상쇄시키고 있다.

제4부는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하루 분량의 기사를 바탕으로 ‘왕의 하루’를 재구성하여 왕의 다사다난한 일상에 대한 간접 경험과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하루 기사 구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승정원에서 수행한 일과 『승정원일기』를 기록하고 남긴 사람들의 기록정신과 애환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맺음말은 『승정원일기』의 번역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번역 및 집필가의 입장에서 언급하고 있다. 비록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지만, 여전히 잠들어 있는 『승정원일기』를 번역을 통해 조속히

- 
- 12) 유서(諭書)는 교서와 마찬가지로 임금에게 특정 개인이나 다수의 대중에게 내리는 문서이다. 개인에게 내리는 유서로는 우선 군사권을 가진 각 도의 관찰사·절도사·방어사와 개성 유수나 강화 유수의 관직에 제수할 때 밀부(密符)와 함께 내려 주는 문서가 있다.
  - 13) 계사(啓辭)는 관사에서 임금에게 올리던 문서로 승정원으로 나아가지 않고 해당 아문에서 직접 올리는 계사, 도제조가 없는 아문에서 수장(首長)이 직접 승정원의 아방(兒房)에 나아가 임금에게 올리는 계사,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올리는 정청 계사, 빈청 계사, 원의 계사 등이 있다.
  - 14) 초기(草記)는 도제조가 있는 아문에서 임금에게 아뢴 일이 있을 때 간단한 형식으로 작성하여 올리던 문서로, 중앙 관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 15) 서계(書啓)는 왕명을 수행한 신하가 그 결과를 임금께 보고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 16) 장계(狀啓)는 지방의 관직에 제수된 신하나 왕명을 수행 중인 신하가 임금에게 보고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 17) 상소(上疏)는 현직이나 전직 관원 또는 유생이 임금에게 아뢴 일이 있을 때 올리는 문서로, 단독으로 올리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올리기도 하였다.
  - 18) 단자(單子)는 인명이나 물명 등을 열거하여 기록한 문서이다. 따라서 단자에는 인명의 경우 당사자의 직명과 성명을, 물명의 경우 물품의 이름과 수량 등을 열거하여 기록하였다.



깨우고 역사자료 및 문화콘텐츠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다.

#### 4. 나가는 말

『승정원일기』는 우리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유산이자, 세계가 인정한 기록유산이다. 그러나 한글 공용화와 서양문화의 유입으로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국역과정 없이는 가독과 이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역사와 지식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어려움을 넘어 전통과 현재의 단절이라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승정원일기』를 단지 전시물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오늘날과 연결시켜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승정원일기』 번역연구자들에 의해 하나의 콘텐츠로 집필된 본서는 『승정원일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일으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인조, 영조, 고종대 기사 위주로 되어 있어 좀 더 많은 왕대의 기사들을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는 방대한 분량의 『승정원일기』 중 인조, 영조 일부, 고종, 순종대의 일기만 번역되었고, 다른 왕대의 일기는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인 듯하다. 어쩌면 이런 한계조차 독자들에게는 다른 왕대 기록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볼 것은 아닌 듯하다. 기획의도에 이러한 것까지 포함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본서를 접하는 독자들에게 분명 앞으로 번역될 『승정원일기』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기사를 모티브로 ‘왕의 남자’, ‘광해, 왕이 된 남자’<sup>19)</sup> 등의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였고, ‘대장금’은 드라마로 제작되어

한류 열풍을 주도했다. 또한 『승정원일기』에 나온 커피를 좋아했던 고종황제를 독살하려 한 김홍륙의 독다사건(毒茶事件)은 영화 '가비'의 소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국역을 완료한 『조선왕조실록』에 비해 『승정원일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원석에 해당하는 『승정원일기』를 다듬기까지는 번역이라는 가공 공정을 거쳐야 한다. 『승정원일기』의 완역이 이뤄지면, 콘텐츠로서의 가능성과 과급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역까지 100년을 기다릴 수 없는 인간의 유한함이 안타까울 뿐이다. 좀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지원돼서 국역기간이 단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승정원일기』가 우리와 세계인들에게 소중한 기록유산이 되었듯이, 우리 시대에 국역을 통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승정원일기』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서는 그 서막을 여는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승정원일기』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국역본을 기다려 온 독자들에게는 목마름을 달래 줄 것으로 기대한다.

---

19) 『조선왕조실록』 「광해군일기」 100권 8년 2월 28일자 기사에 나온 “숨겨야 할 일들은 조보(朝報)에 내지 말라”고 한 말을 모티브로 영화화 한 것이다. 과연 왕이 숨기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해 광해가 사라진 보름 동안의 행정을 재구성한 팩션(faction)으로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 것은 아니다.